

# “일상 공간 속 극적인 이야기가 매력적”



영화 ‘공작’ 이어 ‘목격자’ 주연 이성민

감정연기부터 격투신까지 다채로운 연기 변신 눈길

“올 여름엔 성적표 두 번 받는 느낌이 들었죠”



목격자

“이제 한 집 덜었나 했더니,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았네요.”

8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이성민(50)은 “올여름 성적표를 두 번 받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개봉한 ‘공작’에 이어 오는 15일 선보이는 ‘목격자’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두 영화에서 이성민이 보여준 연기의 결은 전혀 다르다.

실존 인물인 대북 공작원 흑금성 이야기를 다룬 ‘공작’에서는 북한 외화벌이 총책 리명운 역을 맡아 액션 없이 대사와 감정 연기를 주로 선보였다.

아파트 한가운데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그린 ‘목격자’에서는 범인을 목격한 가장 상흔으로 출연했다. 살인자에게 쫓기는 목격자이자,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가장, 도움을 외면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소시민으로서 다양한 감정 연기는 물론 격투신까지 소화했다. 그가 모처럼 원톱 주연을 맡아 글을 오롯이 이끈다.

“촬영 현장에서 더 고스트스러웠던 쪽은 ‘공작’이었어요.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 장면의 긴장감을 배우가 대화로만 만들어가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목격자’는 내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이 바로 내 뒤에 있다는 상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연기하면 됐죠. 다만 상황이 극단적이라 보니까 에너지 소비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목격자’는 올여름 개봉하는 유일한 스릴러 장르 한국영화다. 총제작비 70억 원이 투입됐지만, 200억 원대 안팎의 경쟁작들과 비교하면 덩치는 작은 편이다.

“여름 시장은 어떤 작품 하나가 잘되면 모두 독식

하는 야수들이 모인 곳인데, 이 영화는 초식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솔직히 불안하네요. 아파트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력적 영화”라고 소개했다.

‘목격자’ 속 상흔은 살인범과 눈이 마주친 뒤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목격자가 방관자가 된 결과는 참혹하다.

“관객들이 상흔을 미워할까 봐, ‘저 답답한 놈, 왜 신고를 안 하지’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했어요. 상흔이 신고하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여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상흔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까 봐 우려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봤는지, 또 신고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방관자효과라고나 할까요.” 방관자효과는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덜 돕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성민은 ‘실제 그런 범행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선뜻 답

했다가 잠시 생각한 뒤 “솔직히 고백하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성민은 2014년 드라마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 역을 비롯해 ‘골든 타임’ (2012), ‘기억’ (2016), 영화 ‘보안관’ (2016), ‘바람 바람 바람’ (2017) 등에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역할을 주로 했다. 평범하면서도 진가가 드러나는 인물들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극적인 이야기가 제 취향인 것 같다”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영화 속 이성민을 보고 싶다면 실제 그의 모습도 궁금해진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에요. 고2인 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실망하고 돌아가지요. 배우의 딸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너무 평범하니까요. 평소 저는 늘 집에 늘어서 있고, 밥도 제가 해요. 딸 아이 학원도 데려다주고요. 대부분 남자처럼 극진한 대접을 못 받고 살죠. 허허.”

/연합뉴스

# 영화 ‘신과함께2’ 1000만 고지 눈앞

‘1·2편 쌍천만 영화’ 기대

개봉 첫날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킨 ‘신과함께-인과 연’ (이하 신과함께2) <사진>이 마침내 10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11일까지 905만6694 명을 동원한 ‘신과함께2’는 12일 또는 13일 중 누적 관객 1000 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2편 ‘쌍천만 영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1일 개봉한 이 영화는 첫날부터 124만 6692명을 불러들이며 개봉일 최다관객 동원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 기록을 지난 6월 ‘주유기 월드: 폴른 캠프’이 세운 118만2374명이었다.

영화는 개봉 후 5일 연속 100만 관객 동원이란 신기록도 작성했다. 특히 개봉 첫 주말인 4 일에는 146만6천416명을 불러모아 영화 사상 하루 최다관객 동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어 200만부터 800만까지 역대 최단 기간 돌파 기록을 경신했고, 900만 고지는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있는 ‘명량’과 타이거기록을 이루며 돌파했다.

이제 영화계의 관심은 개봉 12일차에 불과한 ‘신과함께2’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신과함께2’가 1천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우리나라의 천만 영화는 총 22편으로 늘



어난다. 역대 박스오피스의 가장 높은 곳에 1천 761만3682명을 동원한 ‘명량’이 자리 잡고 있고, ‘신과함께2’의 바로 위에는 누적 관객 1027 만5484명을 기록한 ‘인터스텔라’가 존재한다. 영화계 전문가들은 개봉 2주차에 불과한 만큼 ‘신과함께2’가 역대 박스오피스 상단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점치면서도 개봉 초반처럼 급격하게 관객 수를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과함께2’가 뒷심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작’, ‘목격자’, ‘맘마미아!’ 등 신작들의 흥행성적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8일 개봉한 ‘공작’, ‘맘마미아!’가 전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하지 못한 것은 ‘신과함께2’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 소유진·연정훈, 드라마 ‘내사랑 치유기’서 호흡

MBC 10월 첫 방영

배우 소유진(37)과 연정훈(40)이 MBC TV 새 주말극 ‘내사랑 치유기’에서 호흡을 맞춘다. MBC는 ‘내사랑 치유기’에 배우 소유진, 연정훈과 윤준호가 출연한다고 9일 밝혔다.

‘내사랑 치유기’는 착한 딸·머느리·아내이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식구들에 의해 희생당한 임치우와 자신에게 가족은 사치라고 느끼는 최진유가 사랑과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소유진이 임치우를, 연정훈이 최진유를 연기한다. 임치우의 철부지 남편 박완성 역은 윤준훈이 맡는다.



소유진·연정훈

“다시 시작해”, ‘사랑했나봐’의 원영욱 작가가 극본을 ‘순 꼭잡고, 저는 석양을 바라보자’의 김성용 PD가 연출을 맡았다.

오는 10월 첫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리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사생결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 55 열린공간 토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8 평창대관령음악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차총우돌 만국 유랑기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지원	20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비밀과 거짓말(재)	00 토크 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자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총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큐세상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오명 1~2부
12	3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5 UHD 특선 다큐 라이프 오브 독 55 세상의 모든 사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웃굴 모히토와 풋골스 문어숙회>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마음의 가족 캄보디아 코끼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렘(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몬카트(재)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그 여름의 끝, 그리스 섬 기행 1부 에게해 반도 대탐험>
08:45 방귀대장 뽀뽀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여름 임자기행 1부 연꽃보다스님>
09:00 뽀뽀로로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1:50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발굴추적, 어느 삼형제의 선택>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부모성적표 스페셜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0:30 한국기행(재)	16:15 똑똑맨	
	16:30 방귀대장 뽀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 48년생 노력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60년생 발 빠른 실재 분석과 조치가 절실하다. 72년생 이해득실만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모순이 따를 것이다. 84년생 문제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9, 44</p>	<p>42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54년생 유연한 계기가 필요로 연결 되겠다. 66년생 역할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78년생 기본적인 절제를 생략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90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행운의 숫자 : 32, 66</p>
<p>3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49년생 실용적인 대응이 행운을 잡을 것이다. 61년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3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 않은 법이다. 85년생 비교 대상이 상호 거의 비슷하여 선택하기가 난감 하겠다. 행운의 숫자 : 79, 77</p>	<p>43년생 의외의 경로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두렵다. 55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67년생 원만한 관계의 형성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79년생 특이한 변수는 없다. 91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89</p>
<p>38년생 도모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백번 낫다. 50년생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62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74년생 동시 상황이나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 86년생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5, 87</p>	<p>44년생 충분한 눈이 선행되어야 한다. 56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기하게 된다. 68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한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80년생 이재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92년생 멈추었다가 다시 속개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73, 29</p>
<p>39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다. 51년생 지나치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63년생 비약하면 낭패를 부른다. 75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87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행운의 숫자 : 85, 68</p>	<p>45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57년생 기교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69년생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81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93년생 취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임자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4, 07</p>
<p>40년생 도리를 따르고 이치에 순응하자. 52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되었다. 64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88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곡이. 행운의 숫자 : 72, 04</p>	<p>34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46년생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58년생 상생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70년생 체면 차려라 하지 말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볼 일이다. 82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제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2, 45</p>
<p>41년생 장애가 된다면 치위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 53년생 기존의 흐름을 과격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다. 65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가능성을 높인다. 77년생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89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40, 69</p>	<p>35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다. 47년생 과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가장 보편적인 것에 무게를 두라. 59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해나가야 할 때다. 71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와 함께 하자. 83년생 예상치 못한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0, 1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